



‘제로백 3.5초’ 벤츠 최강 전기차 상륙

‘AMG EQE’ 국내 출시...최고 출력 460kW·최대 토크 950Nm 1회 충전 시 최대 354km 주행...첨단 주행 보조·고급 편의 사양 탑재

메르세데스-벤츠의 두 번째 고성능 순수전기 세단이 국내에 출시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고성능 순수전기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53 4매틱(MATIC)+’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가 두 번째로 선보이는 고성능 전기 세단이다.

특히 벤츠가 선보인 전기차 중 가장 빠른 가속도를 자랑한다. 최고 출력 460kW에 최대 토크 950Nm의 강력한 주행 성능으로 정지 상태에서 지속

100km까지 3.5초 만에 도달한다. 이는 현존하는 메르세데스 전기차 중 최고 가속도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53 4매틱+는 최신 리튬 이온 기술을 사용해 제조된 90.56kWh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했다. 1회 충전 시 최대 354km(국내 인증 기준)를 주행할 수 있으며 최대 170km까지의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AMG EQE에 탑재된 배터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및 효율적인 열 관리, 최적의 배터리 작동 온도를 보장하는 배터리 설계 등이 모두 AMG의 특

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도록 설정했다.

또 최대 3.6도의 조향각을 지원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이 기본 장착돼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하다. 에어매틱 에어 서스펜션을 탑재해 역동적 운행에도 안전성과 편안함을 높였다.

운전자의 취향 및 주행 상황에 맞게 엔진, 변속기, 핸들링을 개별 설정할 수 있는 AMG 다이내믹 셀렉트에서 슬리퍼리,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인디비주얼 등 5가지 주행 모드로 다양한 주행경험이 가능하다.

효율적인 주행을 위해 각 주행모드에 맞춰 자동으로 냉각시스템을 가동하며, 스티어링 휠 뒤에 위치한 변속 패들을 통해 3단계의 에너지 회생 모드(D+, D, D-)와 더불어, 회생 제동을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D 오토(D Auto) 모드까지 총 4가지의

회생제동 모드를 제공한다.

외관은 활 모양의 윈-보우(one-bow) 라인 등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디자인을 계승하면서 AMG 전용 블랙 패널 라디에이터 그릴로 고급스러움을 구현했다.

에어 커튼 효과를 내 공력 성능을 높이는 고풍력 블랙 에어 디퓨저도 탑재했다.

인테리어도 AMG 특유의 스포티한 스타일이 특징적이다. 마이크로컷 극세사와 빨간색 탑 스티치로 이루어진 특별한 시트 커버를 포함한 AMG 나파 가죽 시트와 나파 가죽 소재의 AMG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 AMG 레터링이 새겨진 AMG 스포츠 패달과 AMG플로어 매트, 발광 도어 실 트림 등 AMG 감성을 담았다.

이에 더해 운전석, 조수석, 중앙 디스플레이까지

3개의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합쳐진 MBUX 하이퍼스크린을 기본으로 탑재했다.

더 뉴 AMG EQE에는 드라이빙에 재미를 더하는 메르세데스-벤츠와 AMG만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및 고급 편의 사양이 탑재됐다.

기본 적용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 플러스’, 사고 발생 이전에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프리-세이프’ 등 운전자 지원 기술도 다양하게 탑재됐다.

여기에 특수 스피커, 베이스 액츄에이터 및 사운드 제네레이터가 탑재돼 AMG만의 주행감성을 살린 사운드 경험도 가능하다.

한편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53 4매틱+의 가격은 1억4380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캐스퍼, 지금 사면 초저금리 할부



28일까지 최저 0.9% 프로모션 최대 50만원 할인 중복 적용

현대자동차가 낮은 할부 금리와 추가 할인 혜택을 담은 캐스퍼 전용 특별기획전을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기획전 기간 내 캐스퍼 차량을 계약할 경우 최저 0.9%의 할부 금리 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 60개월 이하 할부 금리(모빌리티 표준형 4.1%)와 비교해 볼 때 최대 3.2% 포인트 낮은 할부 금리로 캐스퍼 구매가 가능하다.

캐스퍼 특별기획전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할부 상품은 모빌리티 표준형 할부 단일 형태로 ▲36개월 0.9% ▲48개월 1.9% ▲60개월 2.9% 등 3가지 상품으로 구성된다. 캐스퍼 1.0 가솔린 스마트 트림 차량(가격 1385만원)의 경우 이번 초저금리 할부 프로모션 이용 시 3년 간 총 이자 비용은 약 19만원 수준이다.

특히 이번 특별기획전에 포함되는 차량은 최대 50만원 할인 혜택이 중복 적용된다. 캐스퍼 공식 홈페이지에서 특별기획전 차종 메뉴를 통해 대상 차량 별 구체적인 할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마세라티 MC20 첼로’ 국내 5대만 판매

제로백 2.9초 최고속도 325km/h 전 세계 65대 한정 선주문 생산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가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MC20 첼로’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

10일 마세라티에 따르면 최근 ㈜FMK 마세라티 한남 전시장에서 마세라티의 컨버터블 슈퍼 스포츠카 ‘MC20 첼로’의 국내 출시를 발표했다.

‘MC20 첼로’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김광철 ㈜FMK 마세라티 대표이사과 마세라티 아태지역 기무라 다카유키 총괄대표가 한정판 슈퍼 컨버터블 모델 ‘MC20 첼로 프라마세리에’를 공개했다.

‘MC20 첼로’는 쿠페 모델인 ‘MC20’의 컨버터블 버전으로, 우아한 디자인과 강력한 퍼포먼스가 특징이다. 공기역학적 설계와 완전 접이식 글라스 루프 탑재를 통해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장 아름다운 스포츠카’라는 평가를 받지만, 외관보다 레이싱 카의 DNA가 이식된 ‘성능’이 더 돋보인다.

‘MC20 첼로’는 최대토크 73.4kg.m, 제로백 2.9초, 최고속도 325km/h의 성능을 발휘하는 630마력의 신형 V6 3.0L 터보 엔진인 네투노(Nettuno) 엔진이 장착됐다. 이전까지 F1에서만 볼 수 있었던 기술을 도로 위로 이전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으로, ‘마세라티 이중연소’(Maserati Twin Combustion) 기술로 국제 특허를 받았다.



마세라티 이노베이션 랩의 엔진 전문가들이 첨단 기술을 적용, 현존하는 V6 엔진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그 결과 MC20은 탁월한 주행성과 편안함, 안전성을 겸비해 트랙이나 일반 도로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완벽한 성능을 발휘한다.

또 MC20 첼로는 이탈리아 ‘달라라 윈드 터널’(Dallara Wind Tunnel)에서 1000회 이상 200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전산 유체 역학 시뮬레이션을 시행, 더욱 향상된 공기역학을 갖춘 ‘달라리 예술품’으로 탄생하게 됐다.

특히 이번엔 공개한 한정판 모델 ‘프라마세리에 리미티드 에디션’(PrimaSerie Limited Edition)은 전 세계 65대만 한정 생산되는 모델이다. 국내에서는 5대만 판매 예정이다.

아쿠아마리나 컬러와 화이트골드 컬러의 조합과 스티칭 옵션 적용을 통해 럭셔리한 감성과 높은 희소성을 자랑한다고 마세라티는 전했다.

한편, 마세라티의 럭셔리한 감성과 특별함의 상징이 될 ‘MC20 첼로’는 선주문 생산 과정으로 제작돼 고객에게 순차적으로 인도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국내 완성차 수출 단가 사상 최고

레저용·친환경차 수출 증가...5년새 40.5% 상승 ‘2970만원’

국내 완성차업계의 자동차 수출 단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수익성 높은 레저용 차량(RV)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친환경차 수출 증가가 주된 요인으로 보인다.

10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완성차업체들의 자동차 1대당 수출 가격은 2만1276달러(약 2810만원)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만5147달러(약 1998만원)에서 5년 만에 40.5% 오른 수치다. 올해 들어서는 2월 평균 수출 단가가 2만2515달러(약 2970만원)로 작년 평균을 웃돌았다.

지난해 자동차 수출 대수(230만333대)가 전년 대비 12.7% 증가한 데 비해 수출 금액(489억 4105만 달러·약 64조5780억원)은 같은 기간 18% 늘어 수출이 양적·질적 성장을 모두 달성하

고 있다.

이는 세단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RV차 판매가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는 추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RV 수출(164만5773대)은 전년보다 14.4% 증가했고, 전체 승용차 수출에서 RV 모델 비중도 2017년 56.8%에서 지난해 74.2%로 커졌다.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도 배터리와 각종 전자장비 등 상대적으로 고가 부품을 사용해 내연기 관자보다 수출 단가가 높아 수출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작년 현대자동차의 대표 전기차 아이오닉5는 7만1380대 수출돼 전년(4만3237대) 대비 65.1% 늘었고, 기아 EV6의 수출량(5만8414대)은 전년(1만8354대)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연합뉴스

현대차 대형버스, 세계 첫 수소연료 탑재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출시

현대자동차는 승객 수용 부문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어 갈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는 고속형 대형버스급에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차량으로 에너지 생산부터 운행까지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다.

현대차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에 최고 출력 180kW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최고 출력 335kW, 최대 토크 1200N·m의 안티 저크(Anti jerk) 모터를 탑재하고, 48.2kWh의 고출력 리튬 이온 배터리를 장착했다.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635km다.

또 현대차는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에 세계 최초로 MR(자기 유변 유체) 댐퍼와 차량의 좌우 및 앞뒤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제어 로직을 적용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향상시켰다.

이밖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이탈 경고 ▲운전자 상태 경고 ▲햅틱 스티어링 휠 ▲후방 모니터 ▲후방 주차 거리 경고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통해 상품성과 안전 성능을 확보했다.

현대차는 상용차에 맞게 특화한 ‘블루링크 플릿’ 서비스를 5년간 무상으로 제공해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구매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블루링크 플릿 서비스는 연비와 충전을 분석해



주는 것은 물론 실시간 운행 상황부터 고장 발생 여부까지 차량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효율적으로 차량 점검을 가능하게 해주며, 주행 분석을 통해 운행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현대차는 이번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출시를 통해 현대자동차 수소전기 대형 상용차의 전 라인업을 구축하게 됐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